



2017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서울기독교사회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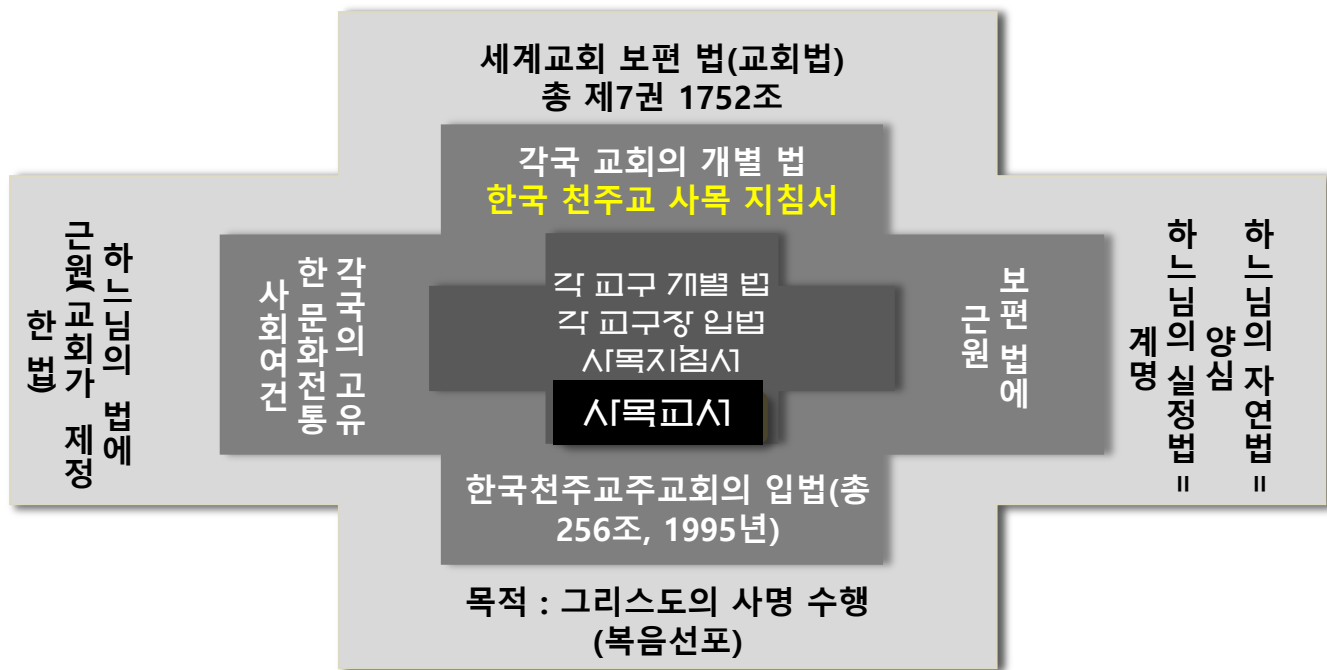
사목교서와 사목지침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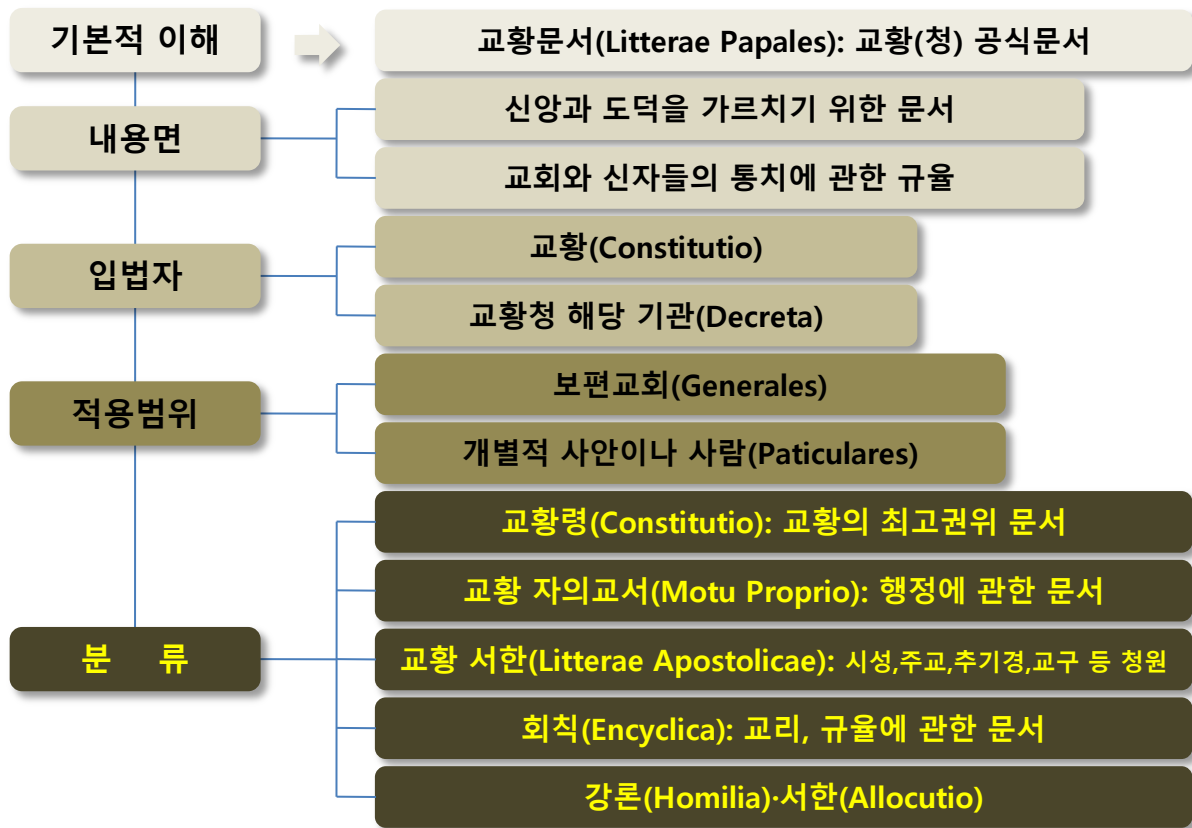
기본적 이해



사목교서(pastoral letters)와 사목지침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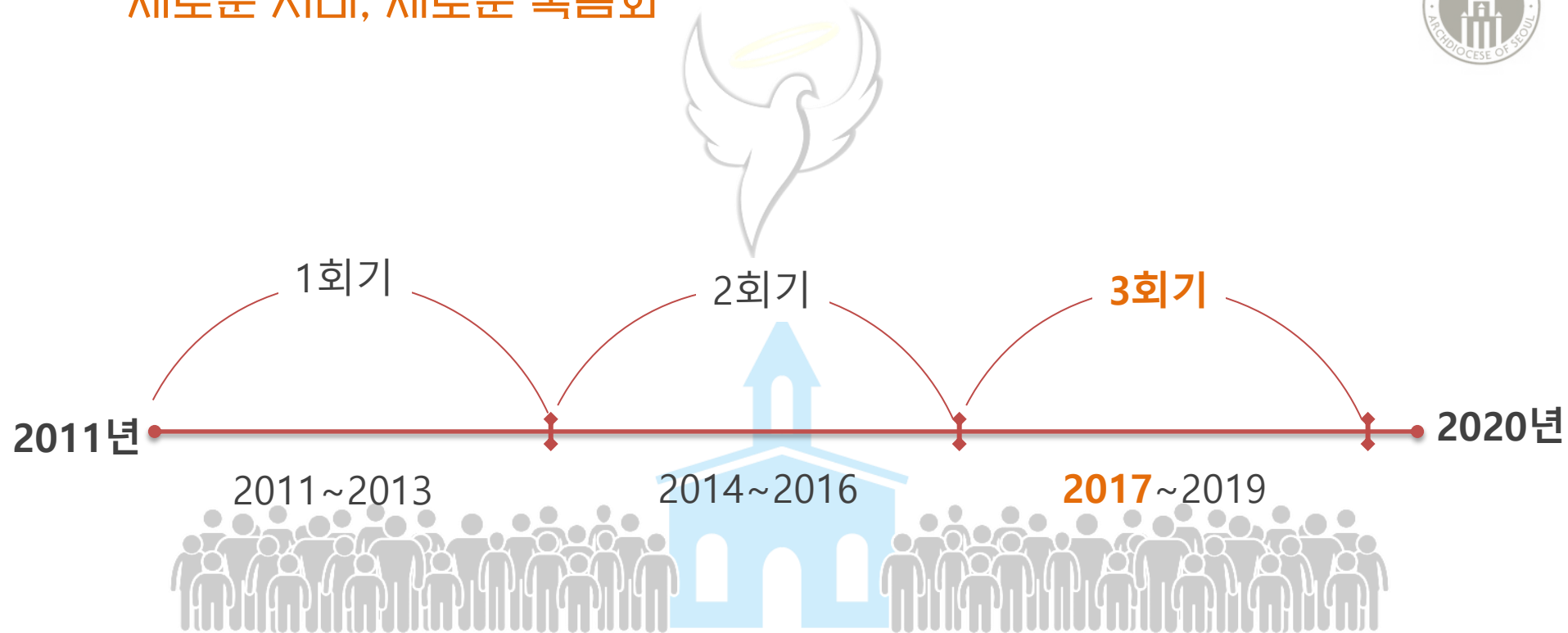
사목교서와 사목지침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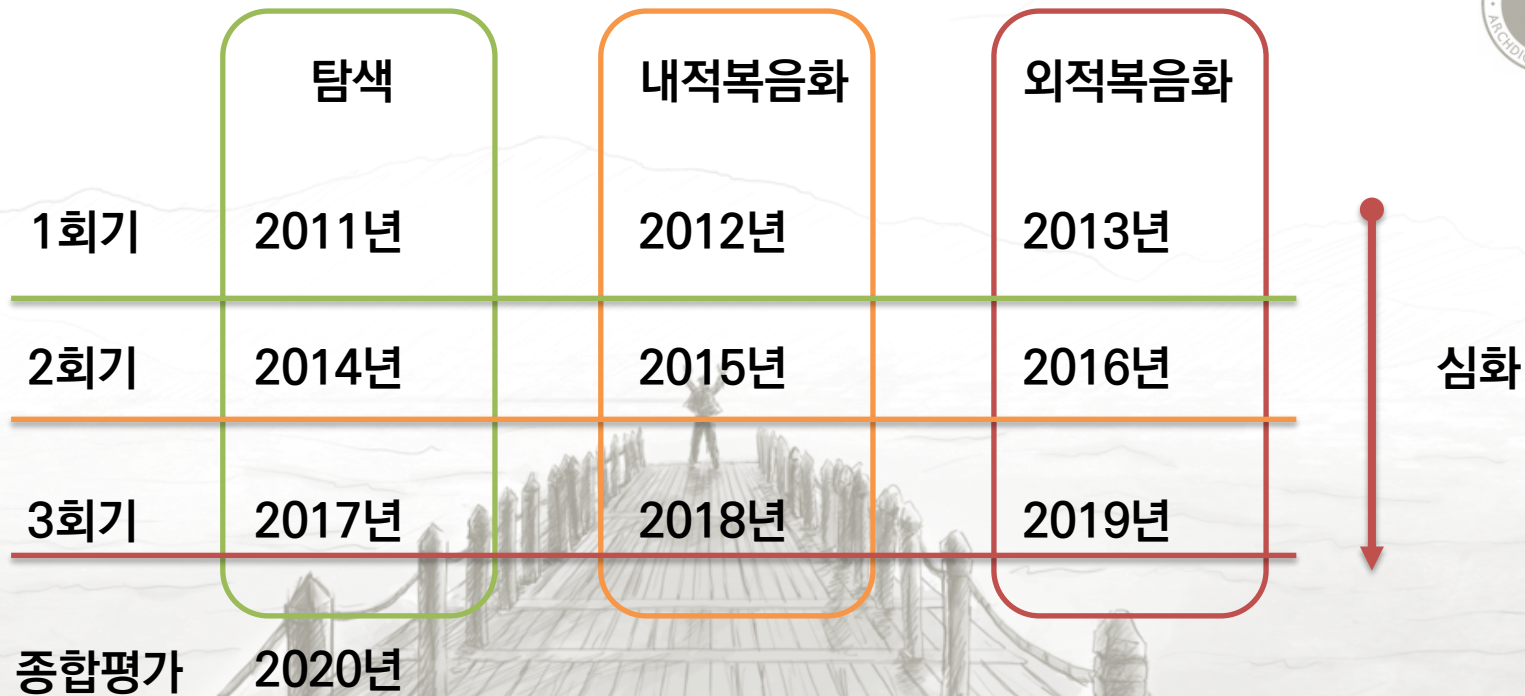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장기정책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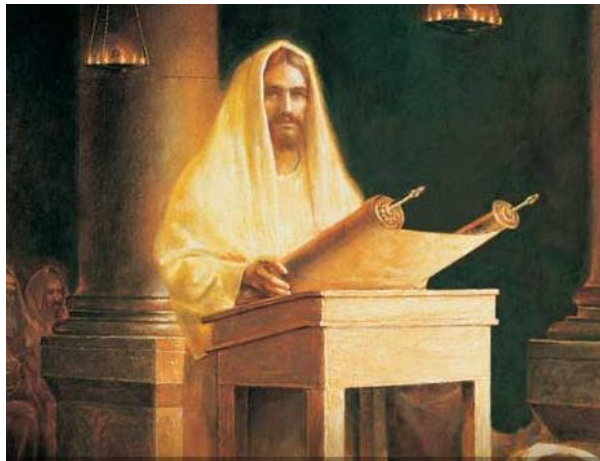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해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상자이신” (히브 12,2)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로 나아갑시다.



신앙의 기초 강화하기

다섯가지 표어



1

•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성경 읽고, 쓰고, 묵상)

2

• 기도로 지리나는 신앙 (아침저녁, 식사, 잠들, 목주, 기장을 위한 기도)

3

•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공의회 문헌, 교리서)

4

• 미사로 해나가는 신앙 (미사 참례, 상제 신심)

5

•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실천하는 믿음)

2017년 사목교서

교구장 인사말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교구는 전임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뜻에 따라 2013년 한 해를 ‘신앙의 해’로 지내면서 우리의 허약한 신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신앙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한 해에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어, 기도로 자라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진 신앙 강화의 여정을 걸었고, 올해는 **미사로 하나가 되는 신앙의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2017년 사목교서



1.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이며 원동력

- ① 미사전례는 교회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 ② 미사는 신앙의 종합선물 (주님의 말씀 + 공동체의 기도 +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 ③ 주님께서는 미사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를 한마음 한 뜻이 되도록 인도해주신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의 일치를 이루면서 형제적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곳이 바로 미사입니다.
- ④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를 그으면서 미사가 시작됩니다. 이 성호경을 바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2017년 사목교서



1.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이며 원동력

- ⑤ 말씀 전례 중에는 독서와 복음을 함께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 이룹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루카 8,21)

- ⑥ ‘신경’을 바치며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신앙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룹니다.

- 시간적 :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지켜왔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과 하나됨
- 공간적 : 전 세계에 퍼져있는 가톨릭 신자들과 하나됨

- ⑦ 성찬의 전례에서도 주님과의 일치, 신자들 서로 간의 일치가 이루어 집니다.

- 예물 봉헌 : 십자가 상에서 당신 자신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어려운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과 일치
- 영성체 : 주님과의 일치, 신자들 간의 일치가 절정에 이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6-17)



2017년 사목교서



1.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이며 원동력

- ⑧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 서로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가정 안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듯이, 신앙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 교회를 통해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전달되기에 어머니이신 교회의 품 안에 머물면서 미사에 참례하여 복음을 함께 경청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가진 바를 서로 나누고, 영성체로 일치를 이룰 때, 신앙은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 ⑨ 미사 중에 주님의 말씀과 성체의 힘으로 신앙이 자라나 굳건해질 때 세상에 나아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성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선물인 동시에 이웃에게 빵과 신앙을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약속을 상징한다.” -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미사 강론 (2016.5.26.)
-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 14,16)
- 삶을 쪼개어 나눌 수 있는 힘은 바로 성체성사에서 비롯되며,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의 힘을 믿고 체험하고 전해야 합니다.



2017년 사목교서



2. 성체성사의 삶을 힘께 살아가지고 요청(사제, 수도자)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되어 굳건한 믿음, 확고한 희망, 따뜻한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교회와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에는 특별히 미사 전례의 핵심이자 '교회 일치의 원천이며, 친교의 공현인 성체성사'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교구민 모두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 ① 사제 : 여러분은 날마다 축성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여러분 손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랑의 기적을 증언하며 전달하는 고귀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 거룩한 미사를 첫 미사 때와 같은 기쁨과 열정으로, 생의 마지막 미사처럼, 유일한 미사처럼 거행하십시오. 또한 감실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며, 감실 안에 머무시는 주님을 세상 삶의 자리로 모셔 가십시오.
- ② 수도자 : 감실에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당신 곁에 머무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교를 더욱 깊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삶에 의미와 충만함을 채우고 증언하십시오.



2017년 사목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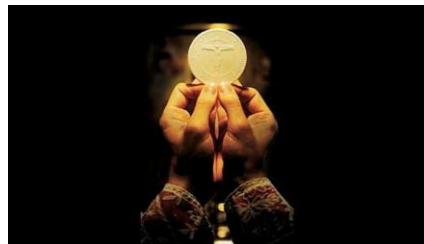


2. 성체성사의 삶을 힘께 살아가지고 요청(교우)

- ③ 교우 :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지만 삶에 필요한 빛과 힘을 성체성사에서 얻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정의 아름다움과 사명을 충만히 체험하기 위해서 **성체성사의 은총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성화의 기반은 세례성사에 있으며 성체성사에서 그 극치를 이룹니다.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사랑의 마음과 나눔의 신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정은 최초의 신앙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육자’이므로 부모는 믿음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뿌리 내리도록 보살펴야 할 자신의 의무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2017년 사목교서



3. 능동적인 미사 참례와 성체공경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미사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례하기를 바랍니다. 미사 전에 성실히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례 시작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심을 올리는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잠시라도 가집시다. 또한 그날 미사 독서와 복음 말씀을 미리 읽고 마음에 새기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고해 성사를 통하여 내적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합니다.

성체공경은 미사 중에는 물론, 미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체께 마땅한 흠숭을 드리기 위해 개인적인 성체조배와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시간과 성체 강복에 자주 참여하여야겠습니다.

건강이나 노령으로 미사에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병자영성체로써 영적도움을 주는 일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17년 사목교서

나기며 : 복음을 진하고 실천하도록 파견

미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화의 열정을 재발견하고, 교회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가 우리의 삶과 복음화의 중심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사 전례 안에서 체험하는 하느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파견합니다. 우리 교구가 미사로 하나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임을 함께 느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7년 사목교서



상제상시의 모범이시며
인류 최초의 감실이신 상모 마리아님,
지회를 위하여 빌어주소시.
그리스도의 순수한 빵과 포도주가 되신
회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
지회를 위하여 빌어주소시.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사회사목국



성체는 사랑과 연대와 자선을 일깨우는 배움터이며, 성찬례 안에서 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모든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떼어 나누게 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15년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삼종기도 강론', 2016년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미사 강론' 참조)

더 나아가 성찬례는 하느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을 넘어 사람과 창조된 생태계를 이어 줍니다. 성찬례를 통해 세 가지 차원의 일치 that 이루어집니다. 성찬례를 통해 온 세상은 강생하여 현존하시는 아드님과 하나 되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찬례는 이웃형제들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책임을 일깨우며 그것을 다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찬미받으소서] 236항 참조)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사회사목국

1. 지역 내 경찰서와 지구대에 있는 경찰과 의경들의 영적돌봄을 위하여 신앙 교육 및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봉사자(선교사) 양성 및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 저임금, 불안한 고용, 위험한 사업장 안에서 노동의 가치가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문제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룹니다.’(사목교서 중에서) 그러나 백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당구역 내 노인 양로원, 노인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등에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각 지역, 지구, 본당에서는 구역 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미사를 거행함으로써 같은 신앙을 지닌 어르신들과 시설종사자들이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 서로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쁨과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사회사목국

4. 중독자들이 치료를 통해 회복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한다.
5. '미사로 하나가 되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본당 지역 내의 가난한 사람(노인, 청년, 아동, 여성, 이주민 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하느님의 자비가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문화예술 복음화'를 통해 전례 안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사회사목국 :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7. ‘예물을 봉헌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당신 자신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어려운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과 일치를 이룹니다.’ (사목교서 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성체성혈대축일 강론에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영적·물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체성사의 은총을 받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 가이드북」을 참조하시어 적극 안내해 주시고,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각 본당과 기관에서는 미사성제를 통해 지역 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기억해 영적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향해 주시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에 행하는 모금운동과 2차 헌금에 적극 참여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본당교우들이 본당구역 내 지역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사회사목분과와 단체원들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학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해 주시고, 지역 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과의 만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사회사목국

8. 본당 공동체가 농촌본당 또는 공소와의 형제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자매결연은 단순한 농산물의 직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대한 교육과 행사, 도·농 교류, 일손 돕기 등 인적교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당 내 우리농 활동단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관계가 이어져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참된 의미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이(본당, 교육기관, 병원, 사제관, 기관 등) 이 운동에 동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일용할 양식'을 중심으로 생명의 밥상을 마련합니다. 성찬의 정신인 생명과 나눔을 구체화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신자들의 각 가정 안에서, 밥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사회사목국

9.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난민 등 이 땅의 이주민들은 비록 우리와 피부색, 언어와 생김이 다르다할지라도 같은 하느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들이 우리 신앙과 교회 활동의 힘의 원천인 미사에 편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환대하여 주시고, 교회의 작은 공간일지라도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이들에겐 정말 큰 힘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10. 일반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의 영적 돌봄을 위한 체계적인 봉사자교육 뿐만 아니라 직원 교우들이 미사를 포함한 성사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알코올중독과 각종 중독으로 힘들어 하는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영성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사회사목국

12.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성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인 동시에 이웃에게 빵과 신앙을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약속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쪼개진 빵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삶을 쪼개어 나눌 수 있는 힘은 바로 성체성사에서 비롯됩니다.’ (사목교서 중에서)

각 본당에서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과 「자살예방본당릴레이캠페인」에 교우들이 적극 동참해 우리 주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살유가족들과 자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생명수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각 본당에서는 장기기증희망신청, 조혈모세포기증희망신청, 헌혈하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본당교우들이 생명나눔에 적극 동참해 성체성사의 은총을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성체성사의 은총은 인류전체를 향해 나아갑니다. 전 세계 가난한 이들과 영적연대를 이루고 그들의 고통과 가난을 돌보기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헌미헌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사회사목국

13.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작은 일상적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고결한 일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사용을 삼가고, 물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적당히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천하고, 나무를 심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211항)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목방향

2017년 시목교시에 따른 시목방향



1. 주제 : “참다운 공동체, 진정한 형제애, 살아있는 몸”

2. 상구 :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
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1코린 10,17)

3. 슬로건 :

“우리는 참다운 공동체로써 진정한 형제애를 나누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업방향



4. 사업계획 구성의 틀

- 1) 2017년은 서울대교구 장기정책 주제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마지막 3회기 1년 차로써 마지막 3회기를 통해 내적, 외적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실천사항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2) 법인과 각 시설은 법인의 정체성에 맞도록 2017년도 사목교서를 적용하도록 한다.
- 3) 구체적 실천목표는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시대의 징표=성장), 쇄신해야 할 것(용서와 화해=회개의 기쁨), 새롭게 시도해야 할 것.(새로운 열의, 방법, 표현=희망)으로 구분해 구체적 실천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방법에 대해 모색한다.